

자가격리 무단이탈 고발 → 손해배상 청구

도, 특별행정명령 발동하며 “무관용 원칙” 천명 전담관리반 증원… 불시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도 자가격리 거부 외국 거주 한국인 4명은 출도조치

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이 발동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해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된 A(80대 할머니)씨가 같은달 31일 오후 4시35분쯤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30분간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제주도는 A씨를 대상으로 이탈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제주 7번 확진자(26·여)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B(47)씨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 같은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감염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특히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

화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대폭 확대하고 고발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의 경우는 기존 362명에서 57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시 점검 횟수를 수시로 진행하는 등 늘어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자가격리 최초 고지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및 공무원 모니터링'을 안내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를 독려한다.

아울러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 입도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하고 이후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 밖에도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시행 중인 특별입도절차를 한 단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별행정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자가격리자의 희생과 방역에 동참하는 도민의 노력에 허사로 만들 수 있는 일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일 0시 기준 현재 제주에서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총 26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제주공항 특별입도 절차에 따른 자가격리를 거부한 필리핀 거주 3인 가족과 캐나다 체류 1명 등 4명의 한국인을 다시 다른 지방으로 돌려보냈다. 송은범기자

도소방공무원 수백명 34억 환수 처지 대법원 “휴일·시간외 근무수당 병급 지급 잘못”

1인당 40만~1000여만원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수백명이 앞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과거 휴일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 받았던 소방공무원들에게 최근 수당 환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환수할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많게는 1인당 1000여만원에서 적게는 40만원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도소방본부는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일정 기간을 두고 수당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수당 환수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옛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을 근거로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못미치는 수당을 준 것은 문

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일 뿐 수당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1·2심 판결을 토대로 제주도는 2009년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36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수당을,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 509명에게도 130억원을 지난 2013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주도가 휴일에 일한 소방공무원에게 휴일근무수당에 더해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결론냈다. 1심과 2심은 이같은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각 수당이 중복 청구된 것에 대해선 심리를 다시하라며 고

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당 환수 조치는 우선적으로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36명에 대한 수당 환수는 파기환송심이 끝나면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당 환수 대상에는 고인이 된 7명과 퇴직 공무원 70여명도 포함돼 있다"면서 "고인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환수해야할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지침은 수당의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일 제주시 신산공원 4·3해원방사탑 앞에서 제주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하는 4·3해원방사탑제가 봉행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누범기간에 절도·횡소니 40대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28일 사이 제주시내를 돌며 36차례에 걸쳐 합계 24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누범 기간에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15일 오전 4시9분쯤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연기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를 잠정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행사장을 찾는 시민, 관광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세계 유일의 전기자동차엑스포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당초 오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고대모기자

“명예회복의 길, 아직도 요원”

4·3도민연대 어제 해원방사탑제 봉행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1일 제주시 신산공원 해원방사탑에서 완전한 4·3 해결과 4·3 기념사업 성공 기원을 위한 4·3해원방사탑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다른 절차 없이 제만 올리는 등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이날 열린 해원방사탑제에는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시갑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장성철(미래통합당), 고병수(정의당), 제주시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후보 등도 자리했다.

4·3도민연대는 제문을 통해 “70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희생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아 명예회복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특

별법 개정안 자체가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4·3해결은) 살아남은 자, 후손된 자가 지켜야 할 도리라고 굳게 믿으며 최선을 다해 4·3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촛불혁명정부의 4·3 해결 의지와 노력이 크게 발휘되고 막중한 4·3 과제 해결을 위해 애진하는 모든 사람에게 굳센 용기와 힘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4·3해원방사탑은 4·3 50주년인 지난 1998년 4월 3일 국가적 차원의 4·3 해결을 염원하며 결성된 '4·3기념문화학술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졌다. 4·3도민연대는 매년 4월 1일 이곳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김현석기자

태흥리 인근해상서 보트 좌초 8명 구조

지난달 31일 오후 4시14분쯤 서귀포시 태흥리 포구 남서쪽 200m 해상에서 모터보트 S호(승선원 7명)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S호를 구조하려고 사고해역으로 이동한 민간구조선인 모터보트 K호(승선원 1명)도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사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양경찰서 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 S호 승선원 7명과 K호 승선원 1명 등 8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고사리 캐러갔던 70대 실종 10시간만에 구조

제주에서 고사리 채취에 나선 70대 여성이 실종 신고 10시간여만에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1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8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에 고사리를 캐러 간 A(76)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31일 오후 6시40분쯤 가족들과 마지막 통화 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 의용소방대, 경찰, 공무원, 군인 등 인력 74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 1일 오전 10시25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려니목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나, 저체온 증상을 보여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현석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